

# 정중 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 —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

김성언\*

### 1. 들어가는 말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우리말처럼 문법적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존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 장면을 기술할 때 우리말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화 참여자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존대법에 맞게 번역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말 성경에서는 적절한 대명사(그리고 그에 맞는 조사)를 선택해야 하고 용언에 적절한 어미를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에스더기에 나타나 있는 정중한 언어 표현들을 살피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에스더기에 나와 있는 대화 장면들은 정중 어법을 연구하기에 적절한 본문이다.<sup>1)</sup> 대화 참여자 중 한 명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며, 이 왕과 대화 상대자들 사이에는 사회적 위상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에스더기의 많은 정황이 왕에게

\* Tel Aviv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강사. sungon.kim71@gmail.com.

1) 다수의 학자들은 ‘정중’이라는 용어보다는 ‘공손’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일반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politeness’도 우리말로 옮길 때에는 보통 ‘공손’ 또는 ‘공손법’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브라운과 레빈슨(Brown and Levinson)의 용어인 ‘politeness strategy’도 일반적으로 공손법 또는 공손 전략(책략) 등으로 옮기고 있다(이들의 연구를 위해서는 아래 각주 12를 참조하라).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서는 ‘공손’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인 ‘정중’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공손법(또는 공손 전략)이라는 용어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행하는 수직적 존대법을 반영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하는 수평적 존대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중이 더 적절하다. 한편, 영어에서도 ‘공손법’ 또는 ‘공손한’에 해당하는 영어로는 ‘deference’와 ‘deferential’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politeness’는 이와는 다른 정중 또는 정중 어법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황적륜(Juck-Ryoon Hwang, “‘Deference’ versus ‘Politeness’ in Korean Speech”,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82 [1990], 41-55)도 이러한 의미에서 ‘deference’와 ‘politeness’를 구별하고 있다. 다만, 그는 ‘deference’를 ‘공대’로 그리고 ‘politeness’를 ‘공손’으로 번역하고 있다 (황적륜, “한국어에서의 공대와 공손”, 한국사회언어학회 창립 5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 1995).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중’ 또는 ‘정중 어법’을 공손법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요청을 하거나 어려운 제안을 하는 장면들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대화 참여자들은 왕 앞에서 적절한 언어 전략을 사용해야만 한다. 히브리어 본문에 나타난 이와 같은 정중한 언어 표현들이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히브리어 본문에 나타난 정중한 표현들이 우리말 성경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살피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

에스더기 대화 본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이론적인 논의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대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성서 해석을 위해 일반 언어학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정중 어법에 관한 일반이론의 경우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은 비록 우리말과 같은 존대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성경 인물들 간의 사회적 위상이 다른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정중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 언어학의 정중 어법 이론은 원천 본문(source text)인 원어 성경과 대상 본문(target text)인 우리말 성경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번역자는 히브리어 본문이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에 맞는 상당어(equivalence), 즉 ‘적절한 존대법’을 찾으려는 고민을 해야만 한다.<sup>2)</sup>

## 2. 정중 이론과 존대법<sup>3)</sup>

2) 적절한 존대법은 단순히 ‘직역’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말 성경의 존대법도 전체적인 번역 작업의 일부이다. 따라서 번역 원리나 원칙이 존대법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의 번역 이론에 대해서는 조지윤의 연구를 참조하라. Ji-Youn Cho,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 Ph.D. Dissertation (Vrije University, 2008).

3) 우리말은 일반 언어 현상인 정중 어법/전략(politeness strategy)과는 별도로 형식적이고 문법적인 존대법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언어 현상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언어권에 따라서 분명한 형태의 존대법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정중 어법(또는 공손법)은 사용되고 있다. 우리말 존대법은 학자들에 따라 ‘존대법’(서정수, 『존대법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1984]), ‘높임법’(박덕유, 『한국어 문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문사, 2013]), ‘경어법’(이정복,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서울: 태학사, 2001]), 또는 ‘대우법’(성기철, “현대 국어 주체 대우법 연구”, 『한글』 184 [1984], 81-111)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한길,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서울: 도서출판역락, 2002)는 ‘대우법’이라는 용어가 수직적 관계를 주로 표현하는 ‘존대법(또는 높임법)’과 달리 수평적이고 친근한 관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먼저 일반 언어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정중 이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 연구자들이 한글 번역 성경들을 평가할 때 일반 정중 이론이나 우리말 존대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본문 자체에 반영되어 있는 정중 어법들을 다루고자 한다.

## 2.1. 정중 이론

사회적인 교류 상황을 이해하거나 대화 상대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중에 대한 관심은 일반 언어학 분야에서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중 이론(politeness theory)은 언어학 분야에서 특별히 화용론(pragmatics)이나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4)</sup> 하지만 흥미롭게도 정중에 대한 연구는 전문적인 언어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들의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는 에밀 뒤르하임(Emile Durkheim)과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이다.

특별히 정중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준 개념은 고프만의 ‘체면(face)’ 이론이다.<sup>5)</sup> 고프만에게 있어서 체면은 “한 개인이 자신을 위해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정 만남에서 그가 취한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다. 즉, 체면이란 개인에 대한 타인들의 인식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프만의 체면 이론과 함께 정중 이론에 큰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연구가 바로 브라운과 길만의 글이다.<sup>6)</sup> 브라운과 길만은 언어적인 표현과 ‘권력(power)’이나 ‘연대감(solidarity)’이라는 언어-외적 정황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최초의 학자들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권력’과 ‘연대감’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거리감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다. 다른 표현으로 이들의 연구는 권력/힘과 언어와의 관계를 조명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정중 이론은 언어학 분야에서 레이코프에 의해 진일보하게 된다. 레이코프는 정중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화자가 고려해야 할 세 가지 규칙을 다음

4) M. Terkourafi, “Politeness and Pragmatics”, Keith Allan and Kasia M. Jaszczolt,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617-637. 한글로 된 저술로는 송경숙, 『담화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3)을 참조하라.

5) E. Goffman,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 to Face Behavior* (New York: Pantheon, 1967).

6) R. Brown and A. Gilman,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Thomas Sebeo, ed.,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0), 252-276.

과 같이 제안한다.<sup>7)</sup>

- 규칙 1 강요하지 마시오
- 규칙 2 선택권을 주시오
- 규칙 3 기분 좋게 하고 친절하게 하시오

세 가지 규칙 중에서 어떠한 원리를 따르느냐에 따라 다른 형태(styles)의 정중 어법이 된다. 다시 말해, 위 세 가지 원리가 보편적인 원리이지만 어떠한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는가의 문제는 개별 문화와 사회마다 다르다.<sup>8)</sup> 레이코프는 후에 세 가지 기본적인 정중 전략으로 ‘거리감(distance)’, ‘공손(deference)’, 그리고 ‘동료애(camaraderie)’를 제안했다.<sup>9)</sup> 정중 규칙 1 ‘강요하지 말라’는 ‘거리감’과 연관되고, 규칙 2 ‘선택권을 주라’는 ‘공손’ 그리고 규칙 3 ‘기분 좋게 하고 친절하라’는 ‘동료애’와 관련된다.

레이코프가 제안한 세 가지 규칙보다 좀 더 포괄적인 원칙들(Maxims)은 리치(Leech)에 의해 정교화 되었다.<sup>10)</sup> 리치가 제안하는 정중 원리는 각각 쌍으로 이루어진 여섯 가지 하부 원칙들(maxims)이다:<sup>11)</sup>

- (1) 전략 원칙: 상대방 비용은 최소로 이익은 최대로 하시오
- (2) 관용 원칙: 자신의 이익은 최소로 비용은 최대로 하시오
- (3) 찬성 원칙: 상대방 비난은 최소로 칭찬은 최대로 하시오
- (4) 겸손 원칙: 자신의 칭찬은 최소로 비난은 최대로 하시오
- (5) 동의 원칙: 상호간 반대는 최소로 동의는 최대로 하시오
- (6) 공감 원칙: 상호간 반감은 최소로 공감은 최대로 하시오

정중 이론 연구에서 브라운과 레빈슨(Brown and Levinson)의 업적을 빼놓을 수 없다.<sup>12)</sup> 이들은 고프만의 체면(face) 개념 등 기존 학자들의 다양한

7) R. T. Lakoff, “The Logic of Politeness”, *Proceedings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9 (1973) 292-305; R. T. Lakoff, *Language and Woman's Place: Text and Commenta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1975]).

8) *Ibid.*, 303.

9) R. T. Lakoff, *Talking Power: The Politics of Language in Our Lives* (Basic Books: A Division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0).

10) G. Leech,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1983).

11) *Ibid.*, 199 ff.

12) P. Brown and Stephen C.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견해들을 받아들여 정중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확립한다. 체면은 사회 각 구성원들이 표명하고 싶은 공적인 자기 이미지인데 소극적인 체면(negative face)과 적극적인 체면(positive face)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sup>13)</sup> 체면을 위협하는 행동(face threatening acts)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상황에 맞는 정중 어법을 사용해야 한다. 브라운과 레빈슨은 주요 정중 어법을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설명하고 있다.<sup>14)</sup> 이 중에서 특별히 두 부류가 핵심적이다:<sup>15)</sup> 하나는 적극적인 정중(positive politeness)이고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정중(negative politeness)이다.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화자와 청자의 동질성과 유대감을 강조하는 어법을 의미하고 소극적인 정중은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청자의 마음을 고려한 어법이다. 적극적 정중은 레이코프의 ‘동료애’ 전략에 상응하고 소극적 정중은 레이코프의 규칙 1 ‘강요하지 말라’와 ‘거리감’과 관련된다.<sup>16)</sup> 이들은 공손법에 대해서는 소극적 정중 내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공손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나를 낮추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상대를 높이는 방법이다.<sup>17)</sup>

## 2.2. 우리말 성경의 존대법 연구

우리말 성경에 반영된 존대법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일반 언어학(국어학)이고 다른 하나는 번역학이다.

우리말 성경의 존대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전무용에 의해 시작된다.<sup>18)</sup> 그는 우리말 번역의 체언과 용언 문제를 다루면서 존대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언급한다. 전무용은 먼저 우리말에서 존대법을 위한 2인칭 대명사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sup>19)</sup>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는 대신 ‘당신’으로 부르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하나님, 당신께서는’을 ‘하나님, 자신께서는’ 또는 ‘하나님, 스스로는’ 정도의 재귀적 용법

13) Ibid., 61.

14) 1) 체면 위협 행위 자체를 하지 않기 (no request strategy); 2) 간접 암시 (off-record strategy); 3) 적극적 정중 (positive politeness); 4) 소극적 정중 (negative politeness); 5) 직접 요구 (on-record strategy).

15) Brown and Levinson, *Politeness*, 101-211.

16) D. Tannen, *Conversational Style: Analyzing Talk among Friends* (Norwood: Ablex, 1984), 15.

17) Ibid., 178.

18) 전무용, “성서 번역자가 알아야 할 한국어 문법: 체언과 용언의 표현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5 (2004), 59-81.

19) Ibid., 60.

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제안한다.<sup>20)</sup> 다음으로 전무용은 존대법 측면에서 중요한 대화문의 종결형을 다루고 있다. 그는 우선 우리말 대우 체계가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존대말과 반말’처럼 높임과 낮춤의 수직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수평적인 개념인 ‘격식체’와 ‘비격식체 또는 친밀어’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sup>21)</sup> 하지만 예수님의 대화체로 ‘격식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역』 성경의 전통이 강한 한국 교회의 정서상 여전히 대부분의 번역이 ‘비격식체’를 선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sup>22)</sup>

전무용은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를 다루면서 다시 한 번 존대법 문제를 다루고 있다.<sup>23)</sup> 특별히 겸손함과 정중함을 나타내는 우리말 1인칭 대명사 ‘저’에 대한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sup>24)</sup> 전무용은 결국 이 문제는 ‘나’의 친밀성과 중립성, 그리고 ‘저’의 겸손함과 정중함 사이의 선택의 문제임을 지적한다.<sup>25)</sup> 그는 한국어 현실을 고려할 때 2인칭 대명사 ‘당신’이 높임의 용법으로 확일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sup>26)</sup>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그의 형 아론 사이의 인칭 대명사 사용 문제를 다룬 부분은 매우 흥미롭다.<sup>27)</sup> 마지막으로 3인칭 대명사 ‘그’를 하나님에게 적용한 『개역 한글』의 창세기 24:7은 한국어 대명사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sup>28)</sup>

우리말 존대법 연구는 조지윤에 의해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 조지윤은 마태복음 본문 중에서 예수님의 재판 장면(막 14:58-65)을 중심으로 정중어법과 존대법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sup>29)</sup> 조지윤의 연구는 정중어법에 관한 일반 이론에 대한 선 이해를 통해 우리말 존대법 적용 문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는 존대법에 맞는 우리말 번역에 앞서 두 가지 측면의 이론적인 틀을 먼저 살피고 있다. 우선, 조지윤은 공손에 대한 일반 언어학적 이론들을 고찰한 후 공손 판단의 기준이 되는 다섯 가지 항목들을 제안한다(2장 참조).<sup>30)</sup> 다음으로 조지윤은 직역부터 최근의 스코포스 이

20) Ibid., 62.

21) Ibid., 75-76.

22) Ibid., 76-78.

23)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97-122.

24) Ibid., 104-108.

25) Ibid., 107-108; 예를 들어,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창세기 39:9의 1인칭 대명사로 ‘저’를 선택하고 있고 『새번역』은 창세기 32:11에서 ‘저’를 사용하고 있다.

26) Ibid., 111-112.

27) Ibid., 112.

28) Ibid., 115.

29) Ji-Youn Cho,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

30) Ibid., 61-68.

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경 번역 접근법 내에서 존대법을 고찰하고 있다 (3장 참조).<sup>31)</sup> 조지윤은 대상 본문(target text)의 존대법이 원천 본문(source text)의 사회적이고 문화적 측면의 공손 어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일반 정중(그의 용어로 공손) 이론과 번역 이론을 바탕으로 삼아 논문 마지막 부분(5장)에서 자신의 번역을 나름대로 제안하고 있다.<sup>32)</sup> 결론적으로 조지윤은 예수님과 대제사장 사이의 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쌍방 모두 격식체 중에서 ‘하오체’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 박덕유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존대법 연구를 진행했다.<sup>33)</sup> 박덕유의 연구는 국문법 전문가로서 성경의 존대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박덕유는 우리말 존대법(그의 용어로 높임법) 체계를 격식체 4화계(하십시오-하오-하계-해라), 비격식체 2화계(해요-해)로 구별한다.<sup>34)</sup> 이 중에서 예사높임인 ‘하오체’와 예사낮춤인 ‘하계체’가 젊은 세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성경 번역에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적절한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35)</sup> 박덕유는 본문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발화 유형을 ‘예수님-제자들’, ‘예수님-병자들’, ‘예수님-무리들’, ‘예수님-종교 지도자들’로 구별하여 분석한다.<sup>36)</sup>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어 성경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라체’를 사용하고,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박덕유는 이러한 격식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획일적인 존대법을 지양하고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른 유형의 존대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격식성이 조금 낮은 ‘하오체’나 친근감을 주는 ‘해요체’를 제안한다.<sup>37)</sup> 존대법 체계에서 결정하기 가장 난해한 예수님과 당대 최고 권력자들(대제사장 또는 빌라도 총독) 사이의 대화에서는 조지윤과 같이 상호간 ‘하오체’를 제안하고 있다.<sup>38)</sup>

결론적으로 우리말 성경의 존대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우리말

31)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27-148.

32) 참조, Ji-Youn Cho,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 131-203; 조지윤, “산헤드린에서 진행된 예수의 재판-청자 존대법 번역 문제”, 『신약연구』 7:4 (2008), 619-648에서 논문 일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33)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 (2014), 83-107.

34) Ibid., 85-86.

35) Ibid., 86-87.

36) Ibid., 90-99.

37) Ibid., 92.

38) Ibid., 95-99.

존대법에 기초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성서 원문에는 우리말과 같은 존대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번역상의 문제는 결국 우리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지윤의 연구가 일반 정중 이론과 번역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 자체에 반영되어 있는 정중한 표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나 헬라어 신약 성경에 우리말과 같은 존대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화자들 사이의 대화 속에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따른 어법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중 이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성서 원문 자체에 나타나 있는 정중 어법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문화마다 정중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sup>39)</sup> 성경 내에서의 정중에 대한 이해는 성경 번역에 앞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히브리어(그리고 아마도 헬라어) 성경 원문에 나타나 있는 정중 어법에 대한 간과는 비단 우리말 번역의 문제는 아니다. 히브리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중 어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1990년대 이후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 2.3. 정중 어법 - 성서 히브리어 학계

성서 히브리어 학계에서 정중 이론을 성경 본문에 적용한 것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밀러(Miller)와 레벨(Revell)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up>40)</sup> 비록 이 두 학자들이 정중 어법에 대해 자신들의 저서 일부분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들의 연구는 히브리어 정중 어법에 대한 유용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sup>41)</sup>

밀러는 대화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호칭(terms of address)과

39) D. Tannen, "Language and Culture", Ralph W. Fasold and Jeff Conner-Linton, eds.,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343-372.

40) Cynthia L. Miller,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A Linguistic Analysis* (Winona Lake: Eisenbrauns, 1996, 2003), 269-281;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Expressive Usage in Biblical Narrative* (Winona Lake: Eisenbrauns, 1996, 2003), 267-294.

41) 한편, 밀러와 레벨은 일반 언어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중 어법(politeness strategies)이라는 용어 대신에 공손 또는 존경 어법(deferential language)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이것은 이 두 학자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언어 표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두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할 때는 정중 어법이라는 용어 보다는 공손 어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공손한 표현(*deferential forms*)이라는 두 가지 언어 전략을 통해서 대화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해 준다.<sup>42)</sup> 우선 호칭은 대화 참여자 사이의 사회적 거리감(*distance*)이나 친밀감(*intimacy*)을 표시해 준다.<sup>43)</sup> 예를 들어, ‘나의 주여’ 또는 ‘나의 주 왕이시여’와 같은 표현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호칭들이다. 사회적인 친밀감을 표현하는 호칭들은 모두 가족적인 용어들이다. 예를 들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 그리고 ‘나의 형제’라는 호칭들이 있다.

공손 어법에 대한 밀러의 설명은 간략하지만 명확하다. 그녀에 따르면 공손 어법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그들 사이의 사회적 차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sup>44)</sup> 밀러는 공손 어법을 청자-중심 공손(*addressee-based deference*)과 화자-중심 공손(*speaker-based deference*)으로 나누어 설명한다.<sup>45)</sup> 예를 들어, ‘나의 주’는 청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당신의 종’ 또는 ‘당신의 여종’이라는 용어는 화자 자신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호칭들은 1인칭과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공손 어법이다. 이와 달리 3인칭을 대명사가 화자나 청자를 표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 왕’이라는 용어는 화자가 청자에 대해 좀 더 먼 거리감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2인칭을 대신해서 사용된다.<sup>46)</sup>

레벨은 공손 어법에 대해 밀러보다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sup>47)</sup> 레벨도 밀러처럼 공손 어법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높은 사람에게 요청할 때 필요한 언어 전략으로 보고 있다.<sup>48)</sup> 레벨은 권력/힘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를 보고 있다.<sup>49)</sup> 예를 들어 왕과 일반 백성 사이에는 권력/힘(*power*)에 따른 거리감(*distance*)이 존재한다.

밀러와 레벨의 연구가 전기 히브리어 본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후기 히브리어 및 아람어 문헌에 대한 정중 어법은 브라이언 에스텔(Bryan D. Estelle)에 의해 이루어 졌다. 에스텔은 자신의 2001년도 학위논문을 통해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공손 어법을 연구했다.<sup>50)</sup> 페르시아 시대 왕

42) Cynthia L. Miller,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269.

43) *Ibid.*, 269-271.

44) *Ibid.*, 271.

45) *Ibid.*, 271-272.

46) *Ibid.*, 273-274.

47)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Expressive Usage in Biblical Narrative* (Kampen: Kok Pharos Publishing House, 1996), 265-322.

48) *Ibid.*, 44.

49) *Ibid.*, 43.

궁을 배경으로 하는 에스라서,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더기가 그의 연구에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일반 언어학자들 중에서는 특별히 브라운과 레빈슨의 이론에 주목한다. 그리고 히브리어 학자들인 레벨과 밀러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sup>51)</sup> 다시 말해, 에스텔은 한편으로 일반 언어학의 정중 어법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히브리어 학자들의 공손 어법을 연구의 기초로 삼고 있다.<sup>52)</sup>

에스텔은 자신의 2001년 논문 중에서 에스더기 부분을 약간 수정 보완하여 최근에 다시 정중 어법에 관한 글을 발표했다.<sup>53)</sup> 그는 모두 세 가지 항목으로 정중 어법을 다루고 있다: (1) 호칭 및 직책명; (2) 1-2인칭을 대신하는 3인칭 용법; (3) 비인칭 또는 불특정 행위자.<sup>54)</sup> 한편, 에스텔은 자신의 논문에서는 에스더기의 정중 어법을 네 가지 측면에서 다루었는데 2012년 글에서는 더 이상 전치사 ‘-앞에서(מִלְפָּנֶיךָ)’를 정중 어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성서학계는 정중 어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최근 브리지(Bridge)는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와 오경(민수기 20장) 본문 속에 나타난 정중어법에 대해서 두 개의 글을 거의 동시에 발표한다.<sup>55)</sup> 그의 연구는 레벨이나 밀러와 같은 히브리어 학자들의 견해에 의존하기 보다는 일반 언어학자인 브라운과 레빈슨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용어상으로도 공손 또는 존경(deference) 보다는 정중(politeness)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 3. 에스더기의 정중 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에스더기는 정중 어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성경 본문이다. 대화의 참여자 중 한 명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손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신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왕비인 에스더도 왕 앞에서는 정중하고 공손한 표현들을 사용

50) Bryan D. Estelle, “Know Before Whom You Stand: The Language of Deference in Some Ancient Aramaic and Hebrew Documents”, Ph.D.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001).

51) Ibid., 23-36.

52) “I adopt a consensus approach to studies of politeness and deference” (Ibid., 40).

53) Bryan D. Estelle, “Esther’s Strategies of Becoming an מְשַׁכֵּל”, *Hebrew Studies* 53 (2012), 61-88.

54) Ibid., 64-87.

55) Edward J. Bridge, “Polite Language in the Lachish Letters”, *VT* 60 (2010), 518-534; Edward J. Bridge, “Polite Israel and Impolite Edom: Israel’s Request to Travel through Edom in Num 20:14-21”, *JSOT* 35:1 (2010), 77-88.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스더기 히브리어 본문에는 우리말과 같은 존대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나름의 정중 어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에스더기의 이러한 정중 어법을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분석의 대상이 되는 우리말 성경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 이하 『개역개정』 (1998), 『성경전서 새번역』 - 이하 『새번역』 (2001),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 이하 『공동개정』 (1999), 그리고 『성경』 (2005)이다. 이렇게 한글 성경을 네 권으로 제안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지면의 제약성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네 권의 성경이 다른 번역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sup>56)</sup> 『개역개정』은 개신교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번역 성경이다. 그리고 새번역은 10-20대 독자를 대상으로 현대적 어법에 맞게 번역하였다.<sup>57)</sup> 『공동개정』은 천주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공인 성경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가장 최근에 번역된 천주교 공인 성경이다. 앞으로 천주교에서는 『성경』이 가장 많이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성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역개정』은 사회적 지위나 권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해라체’를 사용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 성경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오체’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 3.1. 왕과 일반 신하(므무간)

신하들과 아하수에로 왕과의 대화 장면은 에스더 1장의 잔치 장면에서 시작한다.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주홍이 나서 그런지 갑자기 왕비를 오라고 명한다. 왕비 와스디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결국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를 거부한다. 왕은 현자들에게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와스디 왕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을 구한다 (1:15).

- (1) 『개역개정』: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 (2) 『새번역』: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 (3) 『공동개정』: 내가 내시들을 시켜 내린 분부를 와스디 왕후가 거역

56) 박덕유(“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 [2014], 89)도 비슷한 이유에서 네 권의 성경을 선택했다.

57) 이들 성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조지윤의 논문(Ji-Youn Cho,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 110, 118-119, 그리고 122쪽을 참조하라.

했으니, 법대로 다스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4) 『성경』: 내시들을 통하여 전달된 이 크세르크세스<sup>58)</sup> 임금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자면 와스티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겠소?

『개역개정』 성경은 왕이 신하들 앞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해라체’로 표현하고 있다. 해라체는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이면서 권위적인 페르시아의 왕의 이미지에 적합한 어법이다. 반면에 『새번역』과 『공동개정』 그리고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하오체’도 오늘날 언어 상황을 반영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번역이다.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계급적 관계보다는 대화 상황이 공적인지 아니면 사적인지에 따라 존대법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sup>59)</sup> 다만, ‘하오체’가 독자들로 하여금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인물이 공적인 자리에서 ‘격식체’를 사용할 정도로 너그러운 성품의 왕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왕이 일반 신하들에게 말할 때에는 전통적인 ‘해라체’와 오늘날의 ‘하오체’ 모두 가능하지만 절대 권력의 페르시아 왕을 표현하기에는 ‘해라체’가 더 적절하게 보인다.

왕의 질문에 신하들 중에 므무간이 대답을 한다. 므무간은 왕을 지칭할 때 2인칭 대명사인 ‘너/당신’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3인칭 일반 명사로 ‘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왕과 신하 사이의 힘의 차이와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므무간은 제안을 하기 전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이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한다. 므무간은 결정이 오로지 왕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자신의 제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도 일종의 소극적 정중 어법(negative politeness)에 해당된다.

므무간의 왕에 대한 대답 부분을 네 종류 우리말 성경은 모두 ‘하십시오’ 즉, 격식체 중에서도 아주높임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1:19에서 므무간은 와스티에 대한 ‘왕후/왕비’라는 명칭을 생략하고 단지 이름만 거론한다. 이것은 와스티가 이미 폐위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한 므무간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sup>60)</sup> 이에 대해서 주요 에스더기 주석가들은 이미 간과

58) 『성경』(2005)에서는 마소라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을 성서 학계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의 이름을 ‘크세르크세스’로 부르지 않고 ‘아하수에로(정확히는 아하수에로쉬)’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통적인 호칭이 더 적절해 보인다.

59) 한길, 『국어종결어미연구』(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1991), 34.

60) 와스티가 실제 폐위된 2:1에서도 그녀는 단지 이름만 거론된다.

하고 있다.<sup>61)</sup> 우리말 성경은 이러한 미묘한 정황을 어떻게 옮겨놓았을까?  
1:19절 중에서 해당 부분만을 살펴보자:

(1) 『개역개정』: …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

(2) 『새번역』: …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어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

(3) 『공동개정』: … 다시는 와스디가 어전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명을 내리십시오 …

(4) 『성경』: … 와스티가 더 이상 크세르크세스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고 …

나머지 세 성경은 모두 ‘왕후/왕비’라는 명칭을 생략하여 히브리어 본문의 정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새번역』은 이 경우에는 불필요하며 히브리어 원문에도 생략되어 있는 ‘왕후’를 첨가하여 번역했다. 이것은 『새번역』이 그 전신인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의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2:1에 대한 번역에서도 계속된다. 다른 성경들과 달리 『새번역』만 유일하게 이미 폐위된 와스디를 지칭할 때 여전히 ‘왕후’로 부르고 있다. 1:19와 2:1 히브리어 본문이 ‘왕후’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에도 역시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 3.2. 왕과 제국의 2인자(하만)

하만도 왕 앞에서 그를 지칭할 때 2인칭인 ‘너/당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 형태로 사용하여 ‘왕’을 사용하고 있다 (3:8-9; 6:7). 비록 하만이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자이지만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도 왕과는 여전히 힘의 차이와 거리가 있다. 왕 자신도 자신을 지칭할 때 ‘나’라는 1인칭 대명사 대신에 ‘왕’이라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6:6).

에스더 3:11절에 대한 한글 성경 번역본들은 존대법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왕의 인품 또는 하만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보여준다. 번역본들 사이의 차이점들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61) M. V. Fox, *Character and Ideology in the Book of Esther*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1, 2001), 22; J. D. Levenson, *Esther: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7), 51-52.

- (1) 『개역개정』: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 (2) 『새번역』: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 (3) 『공동개정』: 돈은 그대가 차지하여라. 그리고 그 민족은 그대 손에 넘길 터이니 좋도록 처리하여라.
- (4) 『성경』: 은은 그대 차지요. 이 민족도 그대가 좋을 대로 처리하시오.

『개역개정』 성경은 해라체 즉, 격식체 중에서 아주낮춤 형태로 번역을 하고 있다. 마소라 본문에서는 왕이 하만을 다른 신하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대우하고 있다는 표식을 남기고 있지 않다. 반면에 『새번역』과 『성경』은 ‘하오체’, 즉 격식체 중에서 예사높임 형태로 번역했다. 그리고 청자를 ‘너’로 하지 않고 『새번역』은 ‘경’으로 그리고 『성경』은 『공동개정』의 호칭을 따라 ‘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제국의 2인자라는 위상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번역이다. 『공동개정』은 조금 복잡한 선택을 했다. 명령문의 동사 형태는 해라체로 번역한 반면 명령의 대상을 ‘그대’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공동개정』이 1장 15절에서 일반 신하들 앞에서 ‘하오체’를 선택한 반면 제국의 2인자인 하만에게 ‘해라체’를 사용한 것으로 왕을 묘사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하만은 신하 개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사적이고 여러 신하들 앞은 좀 더 공적인 자리라 이렇게 번역했을 가능성은 있다. 결론적으로 왕이 하만과 대화할 때에는 하만이 제국의 2인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하오체’로 읊기는 것이 적절하게 보인다.

### 3.3. 왕과 왕비(에스더)

에스더는 하만이나 므무간이 사용하던 일반적인 표현도 사용한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5:4, 8; 7:3; 8:5; 9:13).<sup>62)</sup> 하지만 이러한 표현 앞에 다른 표현을 먼저 사용하기도 한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5:8과 7:3).<sup>63)</sup> 이것은 우선 에스더의 간청이 므무간이나 하만의 제안보다 더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에스더는 일반적인 표현인 ‘왕

62) 성경에 대한 인용은 『개역』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을 주로 참조했다. 하지만, 에스더기 내에서 똑같은 표현을 절마다 각기 달리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서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여 일관성을 이루게 만들었다.

63) 8:5에서는 두 표현이 순서가 바뀌어 나타난다. 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 좋게 여기시거든’이라는 표현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으며’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왕이 에스더와 대화를 시작할 때 다른 신하들에게 사용했던 어법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왕이 에스더를 부를 때 이름 뒤에 ‘왕후’라는 직책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5:3; 7:2).<sup>64</sup> 이것은 왕이 일반 신하들을 지칭할 때에 모두 ‘너’라고 부르는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달리 표현하면, 왕은 에스더에게 정중하고 격식 있는 궁중언어(court language)를 사용하고 있다.

에스더 5:3에 대한 번역에서도 한글 성경들 사이에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위에서처럼 나레이터의 기술은 생략하고 순수한 대사 부분만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 『개역개정』: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 (2) 『새번역』: 웬 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 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소.
- (3) 『공동개정』: 에스텔 왕후, 웬일이오? 무슨 간청이라도 있소? 이 나라 반이라도 주리다.
- (4) 『성경』: 에스테르 왕비,<sup>65</sup> 무슨 일이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개역개정』 성경은 5:3을 해라체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개정』은 이 부분도 왕이 하만에게 했던 어투와 동일한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역개정의 이 부분 번역은 조금 어색하다. 왜냐하면 왕이 에스더를 ‘왕후 에스더여’라고 부르고 있는 호칭 부분과 아주낮춤으로 처리한 의문형 부분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새번역』과 『공동개정』 그리고 『성경』은 모두 하오체 즉, 예사높임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적절한 번역으

64) 에스더기 9:12에서는 이상하게 왕이 에스더를 부를 때 호칭 뒤에 “왕비”라는 직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마소라 본문이 후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필사자의 실수로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우선 헬라이어 사본에서도 “왕비”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평적인 학자들 중에 클라인즈(D. J. A. Clines, *The Esther Scroll: The Story of the Story*, JSOT Sup 30 (Sheffield: University of Sheffield, 1984)는 에스더기 9장도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의 견해가 옳다면 후대 저자가 5장과 7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중한 표현에 대해 숙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65) 네 번역 중에서 『성경』만이 ‘왕비’라는 직책명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좀 더 고어체인 ‘왕후’를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이 좀 더 현대적인 독자들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로 보인다. 왜냐하면 왕이 에스더를 직책과 함께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하수어로 왕은 최소한 왕후 에스더에 대해 정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더도 다른 신하들처럼 왕을 부를 때 반드시 3인칭 형태를 사용하여 공손한 태도를 항상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왕과 왕비의 위상의 차이는 분명하다. 하지만 동시에 왕은 다른 신하들 보다는 왕비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낮춤말 보다는 높임말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스더)에게 적절한 예의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말 존대법 중에서 하오체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오체는 왕과 에스더 사이의 관계처럼 사회적 위상이나 상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알맞은 표현이다.<sup>66)</sup> 물론 이 하오체는 현대 젊은이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말에서는 이미 비격식체인 해오체가 하오체와 동일한 체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sup>67)</sup> 따라서 오늘날 젊은 독자들을 고려한다면 해오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경의 배경이 고대의 왕실이라는 점에 비중을 둔다면 고어체인 ‘하오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편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본다.

7:2에 대한 번역은 5:3의 연장선상에 있다. 개역개정은 해라체로 번역을 한 반면,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하오체를 선택하고 있다. 바로 위 단락에서 언급했듯이 왕이 에스더를 배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사높임 형태인 하오체가 더 적절한 번역으로 보인다. 박덕유도 지적하고 있듯이, ‘하오체는 예사 높임이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용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나 오히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곤 한다.’<sup>68)</sup>

8:8에서는 다시 세 종류의 번역에서 차이점들이 발견된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순수한 대사 부분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역개정』: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2) 『새번역』: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3) 『공동개정』: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다인에게 좋을지 그대들 소

66) 서정수, 『존대법 연구: 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서울: 한신문화사, 1984), 51.

67)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85-86.

68) Ibid., 85.



건에 맡길 터이니, 내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고 내 인장반지로 인을 쳐서 돌려라.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을 친 칙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

(4) 『성경』: 이제 그대들은 유다인들에 관하여 그대들에게 좋을 대로 임금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시오. 임금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인된 문서는 취소할 수 없소.

『개역개정』은 해라체로 옳기고 있는 반면, 새번역은 하오체로 번역했다. 두 성경은 여기에서도 지금까지 유지했던 존대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개역개정』은 계속해서 해라체를 고수하고 있고 『새번역』과 『성경』은 하오체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공동개정』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해라체로 돌아선다. 『공동개정』은 5:3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할 때 하오체를 사용한 반면, 8:8에서는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3:11에서 왕이 하만에게 사용했던 높임법이다. 물론 8:8에서는 에스더만 등장하지 않고 모르드개도 등장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게 사용해야 할 높임법은 해라체보다는 하오체가 더 적절하게 보인다.

### 3.4. 왕비(에스더)와 그녀의 양부(모르드개)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관계는 복잡하다. 우선 두 사람은 친족관계로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사촌 동생이다. 에스더기 2:7과 2:15를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삼촌이 아버지하일의 딸인데 모르드개가 딸처럼 양육했다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이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에스더는 민족적 정체성을 숨기며 살라는 모르드개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2:10). 에스더는 왕후가 된 다음에도 양육 받던 때와 동일하게 모르드개의 가르침에 순종한다(2:20).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다. 왕도 그녀를 부를 때 직책과 함께 부를 정도로 대우를 받고 있는 왕의 부인이다. 비록 나이는 에스더가 더 어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딸과 같은 관계이지만 사회적이고 공식적인 지위는 에스더가 모르드개보다 더 높다. 다시 말해,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측면에서는 모르드개가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에스더는 제국의 왕후이고 모르드개는 단지 신하의 한 명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한편, 마소라 원문 상에는 모르드개와 에스더 사이에 어떠한 위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마소라 본문 자체는 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더 염두 해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에스더기 4장에서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지만 메신저를 중간에 두고 대화를 한다. 한글 성경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말할 때는 주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sup>69)</sup> 반면에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말할 때에는 번역 성경에 따라 다른 존대법을 적용하고 있다. 4:13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1) 『개역개정』: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 (2) 『새번역』: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대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공동개정』: 궁 안에 있다고 해서 왕후만이 유대인 가운데 홀로 목숨을 부지하리라 생각마시오.
- (4) 『성경』: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왕비만 살아남으리라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개역개정』 성경은 해라체 즉, 격식체 중에서 아주낮춤 형태로 번역을 하고 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 사이에 나이와 관계(아버지와 양녀)를 고려한 번역이다. 반면에 『새번역』 성경은 격식체 중에서 가장 높임 형태, 즉 하십시오체로 옮기고 있다. 『새번역』은 비록 자신의 양녀이지만 왕후인 에스더를 존대하려는 모르드개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공동개정』과 『성경』은 하오체, 즉 격식체 중에서 예사높임 형태로 번역했다. 옮기는 과정에서 『새번역』과 『공동개정』 그리고 『성경』은 에스더를 2인칭 너 대신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직책명 ‘왕후’ 또는 ‘왕비’를 첨가하여 부르고 있다.

위 네 가지 번역 성경 중에서 『공동개정』과 『성경』이 균형을 적절하게 이루고 있는 번역이다. 나이를 고려하거나 친족의 관계에서는 모르드개가 분명 높은 위치에 있다. 하지만 현재 에스더는 자신의 딸이기 앞서 제국의 왕비다. 대화의 배경 또한 공적인 장소인 제국의 왕궁이다. 그리고 현재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중간에 신하가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정황에서는, 모르드개는 왕비인 에스더를 존대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 모르드개와 에스더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당시의 독자들을 고려하더라도, 둘 사이에 서로를 높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사높임 형태, 즉 하오체가 적절한 번역으로 보인다.

69) 4:11에 대한 개역(개정)의 존대법은 불분명하다. 이것은 메신저에게 말을 전하는 정황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16절에서는 고어체를 사용했지만 아주높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 4. 결론

에스더기는 궁중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왕의 잔치가 벌어지고 왕과 신하들이 논의를 하고 때때로 재판이 벌어지기도 한다. 제국 시대의 왕들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왕과 신하들 사이의 대화 장면에는 이들의 사회적 위상이 잘 드러나 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적인 페르시아의 제왕이다. 일반 신하들과 하만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 비하면 그 지위가 낮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도 지위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아하수에로 왕은 일반 신하와 하만, 그리고 에스더를 대할 때 그들의 지위에 따라 그리고 친밀감에 따라 미세하게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말은 왕의 이러한 미세한 차이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 바로 우리말 나름의 존재법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옮길 때 정중 어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하수에로 왕이 일반 신하들 앞에서 말할 때에는 ‘해라체’가 적절하게 보인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격식체’를 사용하는 오늘날 언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하오체’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럴 때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한 페르시아의 왕의 이미지와 사뭇 다르게 표현될 위험이 있다.

둘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할 때에는 ‘하오체’가 가장 적절하다. 비록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지만 에스더를 부를 때만큼은 직책명을 반드시 사용하여 ‘왕후 에스더여’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호칭에 맞는 높임법 화계(scale of speech)는 하오체다.

셋째, 왕이 하만에게 어떤 화계를 쓸지가 가장 난해하다. 제국의 2인자라는 그의 위치를 고려하면 ‘하오체’를 쓸 수 있다. 왕과 왕비 그리고 하만 이 세 사람은 같은 잔치에 동석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주제어>(Keywords)

에스더(기), 정중 어법, 존대법, 공손, 사회적 지위, 화용론, 권력/힘.

Esther, Politeness, Honorifics, Deference, Social Status, Pragmatics, Power.

## &lt;참고문헌&gt;(References)

- 박덕유, 『한국어 문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문사, 2013.
-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 (2014), 83-109.
- 서정수, 『존대법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1984.
- 성기철,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교육』, 서울: 글누림, 2007.
- 성기철, “현대 국어 주체 대우법 연구”, 『한글』 184 (1984), 81-111.
- 송경숙, 『담화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3.
- 이정복,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서울: 태학사, 2001.
- 전무용, “성서 번역자가 알아야 할 한국어 문법: 체언과 용언의 표현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5 (2004), 59-81.
-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97-122.
- 조지윤, “산헤드린에서 진행된 예수의 재판-청자 존대법 번역 문제”, 『신약연구』 7:4 (2008), 619-648.
-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27-148.
- 한길, 『국어종결어미연구』,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1991.
- 한길,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서울: 도서출판역락, 2002.
- 황적륜, “한국어에서의 공대와 공손”, 한국사회언어학회 창립 5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 1995.
- Berlin, A., *Esther*.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1.
- Bridge, Edward J., “Polite Language in the Lachish Letters”, *VT* 60 (2010), 518-534.
- Bridge, Edward J., “Polite Israel and Impolite Edom: Israel’s Request to Travel through Edom in Num 20:14-21”, *JSOT* 35:1 (2010), 77-88.
- Brown, R. and Gilman, A.,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Thomas A. Sebeok, ed.,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1960, 253-276. Reprint in C. B. Paulston and R. Tucker, eds., *Sociolinguistics: The Essential Readings*, Oxford: Blackwell, 2003, 156-176.
- Brown, P. and Levinson, Stephen C.,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Cho, Ji-Youn,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 Ph.D. Dissertation, Vrije University, 2008.
- Clines, D. J. A., *The Esther Scroll: The Story of the Story*, JSOT Sup 30, Sheffield: University of Sheffield, 1984.
- Estelle, Bryan D., “Know Before Whom You Stand: The Language of Deference in Some Ancient Aramaic And Hebrew Documents”, Ph.D.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001.

- Estelle, Bryan D., “Esther’s Strategies of Becoming an עִבְרָה מְשֻׁכֵּלִים”, *Hebrew Studies* 53 (2012), 61-88.
- Fox, M. V., *Character and Ideology*, 2<sup>nd</sup> ed.,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1, 2001.
- Goffman, Erving, “On Face-work: An Analysis of Ritual Elements in Social Interaction”, *Psychiatry: Journal for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cesses*, vol. 18, Number 3 (August, 1955), 213-240; Reprint in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New York: Pantheon, 1967, 5-46.
- Hwang, Juck-Ryoon, “‘Deference’ versus ‘Politeness’ in Korean Speech”,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82 (1990), 41-55.
- Lakoff, R. T., “The Logic of Politeness,” *Proceedings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9 (1973), 292-305.
- Lakoff, R. T., *Language and Woman’s Place: Text and Commenta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2004.
- Leech, G. N.,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1983.
- Levenson, J. D., *Esther: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7.
- Miller, C.,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A Linguistic Analysis*, Atlanta: Scholars, 1996.
- Revell, E. J.,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Expressive Usage in Biblical Narrative*, Kampen: Kok Pharos Publishing House, 1996.
- Tannen, D., *Conversational Style: Analyzing Talk among Friends*, Norwood: Ablex, 1984.
- Tannen, D., “Language and Culture”, Ralph W. Fasold and Jeff Conner-Linton eds.,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343-372.
- Terkourafi, M., “Politeness and Pragmatics”, Keith Allan and Kasia M. Jaszczolt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617-637.

<Abstract>

**Politeness Strategies and Korean Honorifics:  
A Case of the Scroll of Esther**

Sung-On Kim  
(Yonsei University)

A translator for honorific languages should be aware of not only the honorific system of the target text but also of politeness strategies of the source text. Korean translators of the Bible therefore must recognize unique deferential system (addressee honorifics) of their own language as well as the politeness strategies of the Bible.

The study of politeness has become a major topic of pragmatics and socio-linguistics. However the interest of politeness started not from linguistics but sociology. Politeness theories were developed, in the field of language, by scholars such as Brown and Gilman (1960), Lakoff (1967), Leech (1983), and Brown and Levinson (1987). They investigated politeness as an universal language phenomena.

Research into politeness strategies has been done by Hebrew scholars such as Miller (1996) and Revell (1996). According to their studies, the question of social status should be a major consideration. Although the study of politeness strategies has been done in classical biblical Hebrew, very little work has focused exclusively on late biblical Hebrew in general, and the polite language of the scroll of Esther in particular.

The scroll of Esther is a good sample text for the study of politeness since it has many dialogues between an authoritative Persian king and his servants. All characters of the scroll know how to use politeness strategies and deferential languages. Their polite languages show that they know their place in the court. A character who is subordinate in status must use polite and deferential language to persuade the king to act as they wish. For example, the use of the third person for polite distancing displays deference.

The last part of this study reviews how four major Korean Bible translations -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Common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1999);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2001); and *The Bible* (2005) - have dealt with addressee honorifics, and evaluated their choice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eness strategies of the scroll. *NKRV* (1998) adopted the archaic honorific system, and remained uninfluenced by rapid linguistic changes during the last century. *RNKS* (2001) and *The Bible* (2005) did not follow archaic and informal style but rather adopted the modern and formal honorific system. The honorific system of *CTHB* (1999) is composed of both formal and informal forms.